

2026-02
ISSUE PAPER

대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진단과 육성방향

정주연 · 강찬미

Contents

제1장 개요 6

제2장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동향 및 정책 환경 10

제3장 대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분석 22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42

I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 뉴스페이스 시대 도래와 우주항공 융합산업의 성장

-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 확산에 따라 위성, 발사체, 지상시스템 등 우주산업 전반의 민간 참여와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무인기 등 미래 항공산업과의 기술 융합도 가속화되는 추세
- 한국 정부 역시 우주산업 육성과 함께 친환경·AI 기반 항공기술 혁신,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확대

▶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른 지역 우주항공 정책 대응 필요

- 2024년 5월 우주항공청(KASA) 출범을 계기로 우주·항공산업을 아우르는 국가 통합 거버넌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 차원의 정책 대응 필요성 확대
- 특히 우주 3각 체제에 이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 등 권역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육성정책이 확대되면서 지역별 역할 정립과 차별화 전략 마련의 중요성 증대
-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국가 정책 변화에 대응한 전략 수립 필요

▶ 우주·항공 산업 간 기술 및 산업생태계 연계성 확대

- 항공산업은 우주산업과 핵심 기반기술(소재·부품, 항법제어, 추진시스템 등), 인력, 공급망 측면에서 높은 연계성 보유
- 국가통계 「2025년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에서도 두 우주산업과 항공산업은 동일 산업분류체계(한국표준사업분류 31310) 내에서 상호 연계
- 따라서 지역 산업육성 전략 역시 개별 산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통합적으로 육성하는 전략 마련 필요
 - 대전시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R&D 허브'를 목표로 우주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나, 지역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항공산업 연계 전략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1.2 연구목적

▷ 대전형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

- 우주항공청 출범 등 국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전의 연구개발·인재·산업 기반을 활용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구축 및 국가 우주항공 R&D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 대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계·연구계의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대전의 차별화된 역할 및 육성방향 제시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 대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진단 및 육성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범위 설정

-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며, 충청권 연계 가능성 일부 검토
- 시간적 범위 : 2026년(기준년도), 2027~2031년(목표년도, 5개년)
- 내용적 범위 : 우주산업, 항공제조산업, 융합분야(우주항공산업)

2.2 우주항공산업 개념 정의

▷ 우주산업 정의

- 우주개발 자체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산업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 산업

[표 1-1] 우주산업 분류체계

대분류	세부 분류
우주기기 제조	▸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지상장비(지상국·발사대·시험시설), 기타(우주기기 제작)
위성활용 서비스	▸ 원격탐사, 위성방송통신, 위성항법
과학연구	▸ 지구과학, 우주 및 행성과학, 천문학
우주탐사	▸ 무인우주탐사, 유인우주탐사
기타	▸ 우주보험(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보험업), 우주활용

출처 : 우주항공청(2025), 2025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항공제조산업 정의

- 항공기 또는 관련 소재류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수리)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항공기 사용자가 운항상의 필요로 자사 항공기에 실시하는 정비·수리·개조 등의 작업은 산업범위에서 제외

[표 1-2] 항공제조산업 분류체계

대분류	세부 분류
항공기 제조	▶ 민항기, 군용기, 그 밖의 항공기
항공기 엔진 제조	▶ 가스터빈, APU·GPU, 그 밖의 엔진
항공기 부품 제조	▶ 기체, 엔진, 전자, 보기구, 동력전달·추진장치, 소재, 기타 부품
관련 서비스	▶ 항공기 설계, 정비(C-체크 이상), 치공구 제조, 기타

출처 : 우주항공청(2025), 2025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본 연구에서의 우주항공산업 정의

- 우주항공산업이란, 우주산업(위성·발사체·지상장비·우주활용서비스)과 항공제조산업(항공기·엔진·부품 제조 및 관련 서비스)을 포괄하며, 양 산업 간 기술·인력·공급망이 융합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무인기, 친환경 추진시스템, AI 융복합 기술 분야를 포함하는 통합적 산업 영역을 의미

2.3 연구방법

▶ 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활용한 정책연구 수행

- 문헌 및 통계 분석
 -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정책·시장 동향 분석
 - 「2025년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 대전 소재 기업·연구기관·대학 현황 조사 및 한국평가데이터(CRETOP)·The VC를 통한 매출·인력·투자 등 정량 분석
 - 우주항공산업 분야 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요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정책수요 조사
 - 산·학·연·관 전문가 인터뷰, 자문회의 및 기업·연구기관 대상 정책수요 조사
- 종합전략 도출
 - 국내외 우주항공 클러스터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 PEST, SWOT 분석 기반 대전형 육성전략 도출

II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동향 및 정책 환경

1. 글로벌 동향 및 주요국 정책
2. 국내 산업 및 정책 동향

II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동향 및 정책 환경

1. 글로벌 동향 및 주요국 정책

1.1 글로벌 시장 동향

▶ 우주항공산업 시장 급성장

■ 우주항공산업의 고성장세 지속

- 우주항공산업은 디지털 전환, 우주경제 확대, 항공수요 증가, 안보 수요 확대에 힘입어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상
- 글로벌 우주산업은 연평균 6~9%, 항공산업은 연평균 4~5%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며, 우주항공산업 시장 규모는 2024년 1,730조원에서 2035년 2,5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 세계경제포럼(WEF)과 맥킨지(2024)는 글로벌 우주경제 규모가 2023년 6,300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8천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30년경 반도체 산업 규모에 필적하는 수준
- 위성통신, 지구관측, 우주데이터 서비스 등 민간 우주서비스 시장이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2024) 등 주요 투자기관도 우주산업을 차세대 전략 투자 분야로 평가

■ 항공수요 확대와 미래 항공모빌리티(AAM) 시장 확대

- 에어버스 「GMF 2026-2045」 및 보잉 「CMO 2025-2044」 보고서에서는 세계 인구 증가, 중산층 확대, 국제 이동성 증가를 주요 성장요인으로 제시하며 향후 20년간 글로벌 항공시장의 지속 성장을 전망
 - * (에어버스) 신규항공기 43,420대 전망, (보잉) MRO 시장 4.9조달러 및 신규 항공 전문인력 240만 명 전망
- 특히 아시아·태평양, 인도,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이 여객·화물수요 증가와 항공기 도입 확대를 견인하며 글로벌 시장 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공통 전망
- 또한 전기추진 기반 도심항공교통(UAM)과 미래항공모빌리티(AAM)가 차세대 항공산업의 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2021)는 2040년 글로벌 AAM 시장 규모를 약 1조 5천억 달러, 마켓앤마켓(2024)은 2030년 eVTOL 시장 규모를 약 151억 달러로 전망
- 유럽 에어버스(Airbus), 미국의 보잉(Boeing)·벨 텍스트론(Bell Textron), 중국의 이항(EHang)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유럽·중국에서 UAM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기체 개발 및 실증사업의 확대 추세

▶ 민간주도 우주경제 확산(New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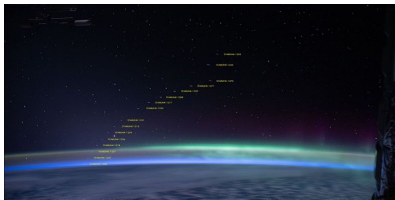
■ 상업 우주산업으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

-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산업구조로 전환 가속
- 발사체, 위성 제작, 위성통신, 우주데이터 서비스, 우주탐사 등 전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역할 확대
- 민간투자 확대와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우주산업이 독립적인 상업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

■ 위성·발사체 기술 혁신 가속

- 저궤도 위성(LEO) 기반 서비스 시장 확대로 글로벌 메가컨스텔레이션(Mega Constellation, 초대형 위성 군집) 구축 경쟁이 본격화
 - * SpaceX Starlink, Amazon Kuiper, OneWeb, 중국 Guowang(國網)·Qianfan(千帆) 등 주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가 경쟁 중이며, Starlink 가입자는 '24년 말 460만 명에서 '26년 6월 160개국 1,200만 명으로 증가
- 재사용 발사체, 소형위성, 초소형위성 기술 발전으로 우주 접근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
- 위성 제작 기간 단축과 발사 비용 절감으로 민간기업의 우주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우주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속화

[그림 2-1] 저궤도 위성(LEO, Low Earth Orbit) 시장 현황



스페이스X 군집위성 (사진:NASA)



스페이스X 미국시 사상 최대규모 상장(사진:나스닥)



유럽우주운용센터(사진:ESA)

▶ 우주방위산업 중심의 투자 확대

■ 우주안보 및 국방 우주체계 투자 증가

-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우주가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
-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 주요국은 위성통신, 우주감시체계(SDA), 우주기반 ISR(정보·감시·정찰), 미사일 경보체계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미국 SDA, NATO, EU 등은 저궤도 위성군(LEO Constellation)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정찰체계 구축을 확대하며 우주기반 안보 역량 강화에 집중
- NATO 및 인도-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우주·사이버·AI 기반 차세대 방위체계 확보를 위한 국방·안보 분야 투자 경쟁 본격화

* 나토(NATO) 회원국 자체 '스타링크' 공동 위성망 헤일로(HALO) 구상안 공개(디지털투데이, 2026.7.21.)

■ 민군겸용(Dual-use) 기술 중심 산업구조 전환

- 위성통신, 지구관측, AI, 드론, 자율비행체 등 민간 기술이 국방분야와 융합되어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
- 우주산업과 방위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정부 군·민간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는 양상
- PwC(2025)는 우주체계, 드론, 자율무기체계, 차세대 공중지배체계(NGAD), AI 기반 국방체계를 미래 방위산업 핵심 투자분야로 제시

➤ AI·디지털 전환이 산업 경쟁력 좌우

■ AI 기반 우주항공산업 전환 가속화

- AI, 디지털 트윈, 자율시스템 기술 등이 우주항공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
- PwC(2025) 「Future of Industrials Survey」에 따르면, 항공우주·방위산업 경영진의 57%가 AI 기반 설계·엔지니어링을 활용 중이며, 약 49%는 2030년까지 생산공정 대부분이 AI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으로 응답

■ 우주데이터 경제 확대 및 우주 데이터센터 시장의 부상

- 위성통신, 지구관측, AI 서비스 확산에 따라 데이터가 우주산업의 핵심자산으로 부상하면서, 우주 데이터 경제(Space Data Economy)가 새로운 성장영역으로 주목
-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은 데이터 저장·처리 기능을 우주공간으로 이전하는 궤도 데이터센터(ODC)와 우주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추진
- 미국은 민간 중심의 초기 상용화 경쟁, EU는 디지털 주권 확보, 중국은 우주컴퓨팅·AI 위성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등 주요국 간 우주 데이터 인프라 선점 경쟁이 본격화
- 데이터 저장·처리·활용 역량이 미래 우주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우주 데이터 주권 확보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

➤ 주요 시사점

- 우주항공산업은 민간 주도의 상업화 확대와 정부 주도의 안보 투자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로 전환
- 저궤도 위성, 우주데이터 서비스, 우주컴퓨팅 등 데이터 기반 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 향후 글로벌 경쟁은 발사체·위성 확보를 넘어 AI·데이터 활용 역량과 우주 데이터 인프라 선점 경쟁으로 확대될 전망

1.2 주요국 정책 동향

▶ 주요국 정책 현황

- 우주항공을 경제안보·기술주권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예산 집중 및 거버넌스 정비 추진

[표 2-1] 주요국 정책 현황

국가	주요 정책 및 추진현황
미국	▶ (우주) 2026년 NASA 예산 188억 달러로 전년(248억 달러) 대비 24.3% 삭감(188억 달러) 요구 및 244억 달러 확정, 우주과학 분야 중심 재정비 및 화성 탐사 프로그램 강화 *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지속 추진(2027년 아르테미스 III 유인 달 착륙 목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달을 넘어 화성 유인탐사를 핵심 우주전략으로 설정 ▶ (안보) 우주군(Space Force) 창설(2019) 등 우주안보 역량 강화, 골든돔(Golden Dome) 방공체계 구축 추진 및 초기 예산 250억 달러 배정(2025.5.) ▶ (항공) FAA 전략계획(2023~2027)에 따라 안전·효율·혁신·책임 중심의 항공정책 추진, eVTOL 형식인증 본격화, Joby·Archer 등 2025~2026년 상용서비스 추진
유럽	▶ (우주) 「ESA Strategy 2040」으로 유럽 우주 역량 강화 및 자립적인 유럽 구현 미션 발표, 2021~2027 우주프로그램 약 149억 유로 배정(2025.4.) ▶ (우주개발) 러시아 의존 탈피를 위해 아리안6 첫 비행 성공(2024.7.), 재사용 발사체 개발 지원 강화 ▶ (통신) 미국·중국 대응 IRIS² 보안위성망(약 300기)을 민관협력(PPP)으로 추진(2024.12.) ▶ (항공) 「Destination 2050」 2050년 항공 탄소중립 목표, EASA SC-VTOL 인증체계 시행으로 Lilium·Volocopter 등 eVTOL 인증 진행
중국	▶ (우주)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서 저궤도 위성인터넷·재사용 발사체·심우주 탐사·민군겸용 기술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제시, 우주를 미래 안보·산업 경쟁력의 '전략적 신국토'로 규정하며 우주강국 건설 본격화(2026.7.) ▶ (우주산업) 국가주도 '귀왕(國網)·'치옌판(千帆)' 저궤도 위성군 구축과 재사용 발사체 개발 가속화, 란드스페이스·딥블루·스페이스파이오니어 등 민간기업의 재사용 로켓 시험 성공으로 상업우주 생태계 급속 확대, '우주 실크로드' 전략으로 글로벌 영향력 확대(2026) * 2025년 궤도발사 연 72회 돌파, 텐궁 상시운영·달기지(ILRS) 구축, 창어 7·8호 추진 ▶ (항공) 「일반항공장비 혁신발전 실시계획(2024~2030)」 및 저고도경제 육성정책으로 드론·eVTOL·UAM을 차세대 성장동력화, 선전 중심 저고도 물류·관광·공공서비스 실증 확대 및 EHang 상용운항으로 글로벌시장 선점 가속(2026)
일본	▶ (우주) JAXA 내 10년간 1조 엔(약 67억 달러) 우주전략기금(SSF) 조성, 2030년대 초 국내시장 8조 엔(2배) 목표 (JAXA, 2024.11.) ▶ (우주개발) 주력 발사체 H3 6호기 발사 성공(2026.6.), 민관 합산 2030년대 초까지 연 30회 발사역량 확보 추진 ▶ (국제협력) 아르테미스 주요국으로 미·일 협력 강화, 인도 공동 달 극지탐사(LUPEX) 등 정밀공학 기반 국제분업 전략 ▶ (항공) 「항공산업혁명 로드맵(2021)」으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Advanced Air Mobility Roadmap 2026」 개정을 통해 2027~28년 eVTOL 상업운항 개시, 2030년대 초 원격조종 여객운송 및 전용 교통관리체계 도입, 2030년대 후반 자율비행 상용화 추진

2. 국내 산업 및 정책 동향

2.1 국내 시장 동향

▶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성장세 지속*

- 국내 우주항공산업은 민간시장 확대와 방산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
 - 국내 우주항공산업 활동금액(기업매출+연구기관·대학 예산)은 2006년 2조 5,335억원에서 2024년 12조 1,765억원으로 확대되며 연평균 9.1% 성장
 - * 2024년 우주산업 4.4조원(CAGR 7.9%), 항공산업 7.8조원(CAGR 10.0%)
 - 기업체 매출 역시 2021년 7조 3,072억원에서 2024년 11조 2,021억원으로 약 53.3%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 특히 우주항공청 출범, 누리호 성공, 민간 우주기업 성장, 글로벌 방산시장 확대 등이 우주항공산업 성장을 견인
- 우주항공산업 매출 구조는 항공제조가 산업을 견인하는 구조
 - 매출 비중은 2024년 항공산업 7.7조원(68%) 우주산업 3.5조원(32%)으로 항공제조가 산업을 견인
 -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9~24년 항공산업 5.7%, 우주산업 1.7%로 항공산업 대비 우주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확인
 - 우주산업 세부 시장별로는 위성방송통신(1.5조원)·위성항법(0.76조원) 등 위성활용 서비스가 매출의 다수를 차지, 위성체·발사체 제작 등 제조기반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 항공산업은 항공기 부품 중 기체(2조 527억원), 엔진(8,897억원), 항공전자(4,989억원)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KF-21 개발과 방산 수출 확대가 주요 성장동력으로 작용
 - 2024년 기준, 국내 우주산업 매출의 65.1%는 수도권, 항공산업 매출의 87.0%는 경상권에 집중된 구조

* 자료 : 우주항공청 「2025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우주항공산업 통계」

▶ 시장구조 및 앵커기업 동향

- 국내 우주항공산업은 소수 대기업 중심의 체계종합 구조 형성
 - 국내 우주항공산업은 발사체, 위성, 항공기, 방산체계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KAI, LIG D&A 등 소수 대기업이 체계종합 역할을 수행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 분쟁 확대, NATO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등으로 글로벌 방산시장이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우주항공기업은 방산 분야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역대 최대 실적 기록 및 글로벌 시장 내 입지 강화

* 2025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6.7조원, LIG D&S 4.3조원, KAI 3.7조원 매출 기록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KAI, LIG D&S 등은 항공기·엔진·위성·감시정찰·유도무기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우주항공과 방산의 융합을 가속화

■ 우주산업은 발사체·위성 중심의 민간 주도 체계 강화

- 국내 우주산업 역시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단계에서 민간이 개발·운영·서비스를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체계로의 전환 본격화
- 우주항공청은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통해 누리호 발사 운영기술의 민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7차 발사까지 민간 주도 운용 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브릿지경제, 2026.8.12.)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누리호 체계종합 및 발사운영 역량 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누리호 기술이전과 민간 발사체 개발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

■ 방산 수출 확대 속 항공산업 성장과 AAM 시장 조정 국면

- 국산 항공체계 개발과 수출 확대가 국내 항공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KAI를 중심으로 주요 대기업들의 체계종합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방산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이 가속화되는 추세
- 반면 국내 대기업 AAM 사업이 잇달아 난항을 겪으며 산업 전반의 진입장벽 급등
- 현대차그룹은 슈퍼널(Supernal)의 대규모 투자 부담 속에서 KAI 등과 협력을 확대하며 기술개발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한화시스템은 오버에어(Overair) 투자 종료 이후 방산·우주사업 중심으로 역량을 재편
- 이에 따라 글로벌 항공산업은 단기적으로 AAM 단독 시장보다는 방산, 무인기, 우주기반 서비스와 연계된 융합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

[그림 2-2] 국내 우주항공산업 현황



뉴스페이스 체계 전환 현황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추진 현황

2.2 국내 정책 동향

▶ 정부 정책 방향

- 2024년 5월 우주항공청(KASA) 공식 출범으로 분산되어 있던 우주항공 기능을 총괄
 -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국가 우주전략의 공간적 골격으로 정립
 - 국가 우주전략의 핵심은 지역별 강점에 기반한 산업생태계의 집적에 있으며, 경남(사천)은 위성, 전남(고흥)은 발사체, 대전은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삼각 축 구성
 - 2026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 가속화를 우주임무로 설정하는 한편,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통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 등 지역 거점 중심의 산업 육성정책 확대
- 정부는 우주항공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을 통해 기업·지역 주도 육성으로의 방향 전환 선언(2026.7.)
 - 정부는 2035년 기업 수 1,200개, 글로벌 시장점유율 3.0%를 목표로 ①R&D에서 수요창출로(방향전환), ②체계 중심에서 소부장·활용까지(영역확장), ③민군협력·타분야 진입 촉진(참여확대), ④미래 선제적 준비(미래선도)의 4대 방향, 위성·미래·발사·항공, 제도·기반을 아우르는 5대 추진전략 제시
 - 뉴스페이스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조성과 법·제도 정비로 민간 자생 생태계를 뒷받침하고자 하며, 뉴스페이스 펀드 대폭 확대(2025년 81억 원 → 2026년 2,000억 원), 「우주항공기본법」 제정 및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개정 등 추진
- 우주산업은 「2045년 글로벌 5대 우주경제 강국」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장기 로드맵 및 기본계획 수정을 통한 정책 전략 구체화
 -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5.11.)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우주개발 예산은 1조 1,605억원으로 전년(1조 8억원) 대비 15.1% 증가하였으며, 특히 우주탐사·우주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확대
 - 우주개발은 ①우주탐사, ②우주수송, ③우주산업, ④우주안보, ⑤우주과학의 5대 임무 체계로 추진되며, 세계 7위 수준의 우주강국 위상을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
- 항공산업은 친환경·AI 전환기를 공급망 진입 기회로 활용하여 ‘2030년대 항공 G7 진입’을 지향
 - 「2026년도 항공산업발전 시행계획(2026.3.)」은 항공엔진 핵심기술 자립,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친환경 항공기술(전기화 터보팬·수소·SAF) 확보를 3대 전략으로 설정

- 첨단항공모빌리티(AAM)·무인기(드론) 등 미래 신시장 창출과 시험·평가·실증 인프라(그린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확충을 병행하며, 국내 항공산업(민수 국산화율 평균 69%)의 기술 격차 해소 도모

▶ 타 지자체 우주항공산업 육성정책

- **경상남도** :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위성·항공엔진·MRO를 연계한 핵심 거점도시 조성 추진
 -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사천·진주·창원을 중심으로 국가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생산액 30조 원과 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업 2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
 - 위성개발혁신센터,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과 초소형 위성 개발·실증 지원을 통해 위성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위성산업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 창원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와 사천·진주 항공MRO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시험·인증·정비를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기반 구축
 -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국제 전시회 육성,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혁신거점 조성 추진

[그림 2-3]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전략방향



자료: 경상남도(2026.02.23.), 브리핑보도자료(경남도 우주항공산업 첨단화와 K-Space 시대선도)

- **전라남도** : 발사체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우주발사 허브 구축 추진
 -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민간 발사장, 기술사업화센터 등을 구축하여 발사체 개발·시험·발사·사업화가 집적된 국가 우주산업 거점 조성
 - 민간 발사장, 엔진 연소시험시설,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상업 발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산업 생태계 구축

-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통해 발사체 전주기 기능을 집적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
- 순천을 중심으로 위성·방산 분야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남해안 우주산업 협력벨트 구축을 통해 고흥의 발사체 산업과 연계된 광역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표 2-2] 전남도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추진개요

- ▶ 기간/예산 : ~ 2031년 목표 / 총 1조 6,084억원
- ▶ 특화분야 : 발사체 개발·조립·발사, 민간 발사서비스, 엔진 연소시험, 우주기술 사업화
- ▶ 주요시설 : 나로우주센터, 민간발사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기술사업화센터, 엔진 연소 시험시설,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추진), 제2우주센터(추진)
- ▶ 주요특징 :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우주항' 구축, 남해안 우주항공벨트의 발사체 거점 역할

자료: 연합뉴스(2025.10.20.), 전남도,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속도..."글로벌 우주항 구축" (전남도 제공)

- 인천광역시 : 항공MRO·UAM·드론·우주방산이 집적된 공항경제권형 항공우주 혁신도시 추진
 - 인천국제공항과 인근 산업단지 연계, 공항경제권 기반의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항공물류·정비·운항·제조가 융합된 산업생태계 구축 추진
 - 항공정비단지 활성화와 민간 MRO 기업 유치를 통해 아시아 대표 항공정비 허브를 구축하고, UAM 실증노선 및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 항공교통 상용화 선도
 - 드론 실증클러스터 조성, 우주산업 사업화 지원, 국방벤처센터 설립 추진 등을 통해 드론·우주·방산 분야의 신산업 성장기반 확보
 - 제조업의 항공산업 진출 지원,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항공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항공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인천공항공사가 주체가 되어 약 234만 6,000㎡(약 71만평) 규모의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추진 중(2023년 4월 착공, 2040년 완공 목표)
 -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공모 선정으로 인천 방산벨트 완성 추진(2026.6.)
 - *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산·학·연·군이 참여하는 방산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국방 신산업의 연계를 통해 방산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 * 2026년 인천(우주항공·첨단전자), 충남 논산(AI 국방로봇), 부산(함정 MRO)이 신규 선정되었으며, 대전은 2022년 드론 특화(R&D) 분야 클러스터로 선정되어 사업 운영 중

[표 2-3] 인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개요(우주·항공·방산 특화)

- ▶ 추진주체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천광역시 (운영 : 인천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
- ▶ 기간/예산 : 2026년 ~ 2030년 / 5년간 총 490억원(국비 245억원, 시비 245억원)
- ▶ 특화분야 : 전자(반도체, PCB, 전자부품 등), 센서(전자감지, 계측, 광학 등), 항공(항공, 우주, 무인기 등)
- ▶ 주요특징 : 우주·항공·드론·반도체 등 민군겸용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 제조산업과 방산을 연계한 융합형 클러스터 추진

자료: 인천광역시청(2026.6.12.) - "수도권 최초" 거점...인천, 'K-방산' 항공·우주, 옛지 시분야 490억 규모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2.3 지역 우주항공 클러스터 현황

▶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본격화

- 우주항공청 중심의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으로 국가 우주항공 클러스터 재편
 -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거점으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육성 계획을 포함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발표(2026.7.3.)
 -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산업·연구·행정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 허브를 조성하고, 전남의 발사체 분야와 경남의 위성·항공제조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추진
- 우주항공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핵심 거점
 - 이재명 정부는 우주항공산업을 반도체·AI 산업과 함께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국가 차원의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
 - 대통령 주재 국가우주위원회(2026.7.3.)에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민간 주도 달 착륙선 개발 등과 연계한 산업 육성방향 제시
 - 이는 지역 단위 특화단지를 넘어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 집적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향후 대전과의 기능적 역할 분담 및 연계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추진개요
 - 추진주체 : 정부(우주항공청), 경상남도, 전라남도
 - 중심거점 : 경남 사천(우주항공청 소재지)
 - 공간범위 : 경남(사천, 창원 진주), 전남(순천, 고흥)

[그림 2-4]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상도



자료: 우주항공청(2026.7.3.),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발표자료

➤ 성장엔진 메가특구 지정 및 우주항공·방산 특화전략 추진

- 우주항공·방산 분야를 포함한 국가 성장엔진 선정 및 메가특구 도입 추진
 -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통해 권역별 핵심 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하는 메가특구 도입 계획을 발표(2026.8.26.)
 -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우주항공·방산 분야도 주요 전략산업으로 포함되었으며, 기존 개별 산업단지 중심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광역권 단위의 산업·연구·실증 인프라를 연계하는 초광역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우주항공·방산 분야 선정 권역 및 특화전략
 - 중부권 :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허브(미래방산·수송시스템 등)
 - * 지역의 미래모빌리티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차, 무인모빌리티, 첨단무기체계를 구동하는 핵심소재·부품·SW의 개발·제조 산업
 - 동남권 : 초격차 제조 AI산업 거점벨트(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등)
 - *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분야의 완제품 생산, 소재부품장비, 유지보수정비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전주기 산업
 - 제주 : 미래산업 프런티어 실증지(소형위성시스템 등)
 - * 소형위성의 개발·제조·발사·관제, 위성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위성관련 전주기 산업

➤ 주요 시사점

- 국가 우주항공 정책의 중심축이 지역 단위 육성에서 권역 단위 전략으로 전환
 - 최근 우주항공 특화 클러스터는 단일 지자체가 아닌 권역 간 기능 분담과 연계를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어, 대전 역시 개별 도시 중심의 접근을 넘어 충청권 차원의 공동 전략 수립과 광역 프로젝트 발굴 필요
- 연구개발·기술혁신 중심의 차별화 전략 강화 필요
 - 남해안권이 제조·발사·실증 중심의 하드웨어 거점으로 육성되는 만큼 대전은 AI 기반 우주항공 기술,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우주SW, 첨단부품·소재 등 연구개발, 전문인력 기반 소프트웨어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호보완적 차별화 전략 필요
- 미래방산·우주항공 융합산업 기반 확대 필요
 - 중부권 성장엔진 메가특구의 핵심 분야 중 하나가 미래방산·수송시스템으로 설정됨에 따라, 대전은 국방 과학기술과 우주항공 기술을 연계한 민군겸용 산업육성 및 실증사업 확대에 집중 필요

III

대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분석

1. 대전 우주항공산업 기반 현황
2. 대전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분석
3. 정책사업 및 산업육성 수요 분석
4. 대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종합 진단

III 대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분석

1. 대전 우주항공산업 기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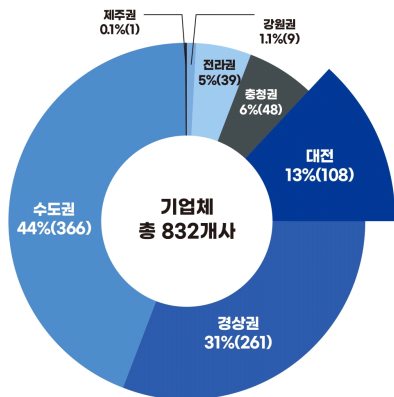
1.1 대전 우주항공 기업 현황

▶ 실태조사* 기반 대전시 우주항공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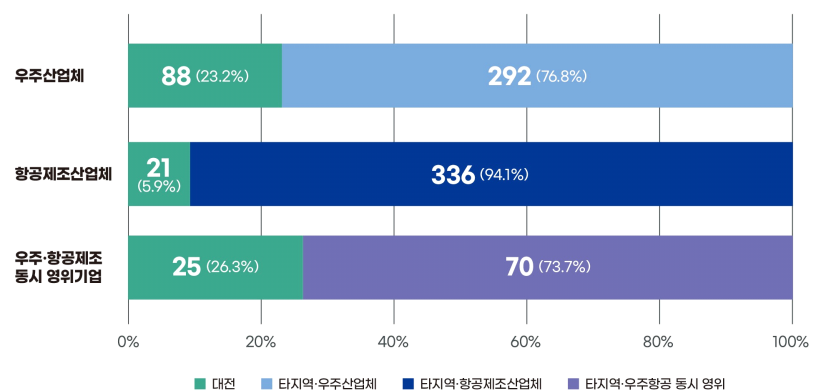
*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 우주개발법 제 24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의 2에 의거한 법정조사

-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832개 우주항공 기업 중 약 15.9%(134개사)가 대전 소재
 -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은 108개사, 타 지역에 본사를 두었으나 대전에 지사·연구소·사무소 등 기반을 둔 기업은 26개사로 확인
- 연구·인재개발 특화 우주산업 거점으로, 우주산업 분야 기업 집적도가 높은 특징
 -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주산업 영위 기업 88개사, 항공산업 영위 기업 21개사, 우주·항공 동시 영위 기업 25개사로 조사
 - 전국 대비 우주산업 참여 비중이 높아 우주분야의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

[그림 3-1] 대전시 참여기업 현황



우주항공 기업체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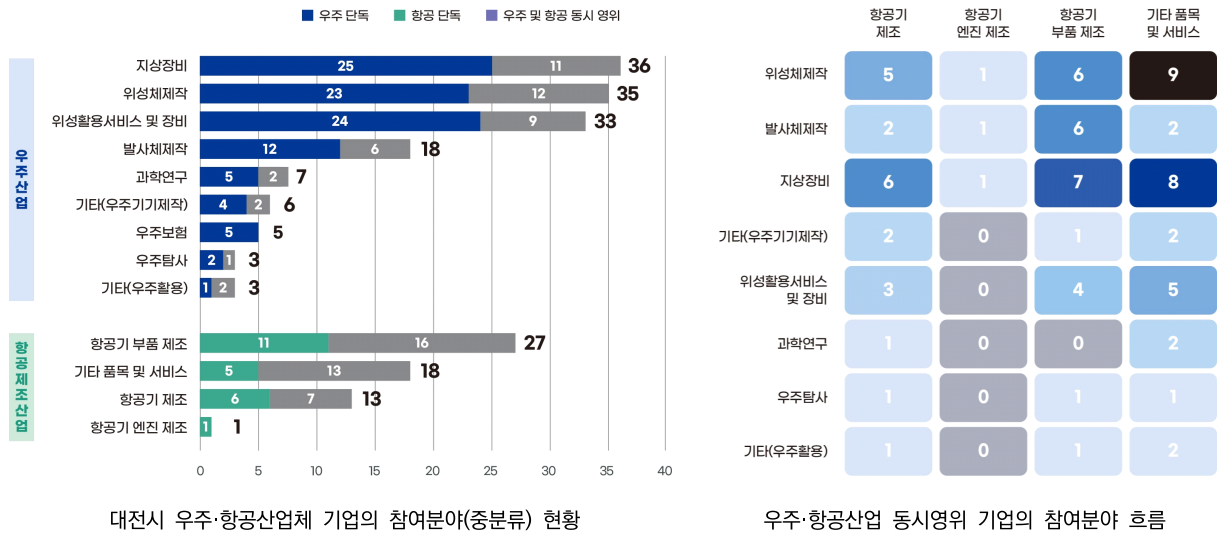


우주항공 기업체 산업별 대전시 분포 현황

- 대전기업은 우주산업 위성체 제작, 지상장비, 위성활용서비스 분야에 강점 보유
 - 우주산업에서는 지상장비(36개사), 위성체 제작(35개사), 위성활용서비스 및 장비(33개사)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
 - 전국 기업의 활동 분야와 비교할 때 위성체 제작 및 지상국·지상장비 분야의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 항공 분야는 항공기 부품제조(27개사) 및 관련 서비스(18개사)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

[그림 3-2] 우주·항공산업 영위 기업 현황



■ 우주·항공 융합기업 비중이 높아 기술 융합 가능성이 우수

- 우주 및 항공제조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25개사 중 위성체 제작 및 지상장비 분야 기업이 항공부품·서비스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 D&A 등 주요 방산·항공우주 기업의 연구소가 대전에 밀집해 있어 우주·항공 융합연구 생태계의 앵커 역할 수행 기대

1.2 대전 우주항공 연구 인프라 현황

➤ 우주항공 관련 연구기관 현황

- 우주항공 산업과 연계된 연구기관 중 약 30%가 대전에 위치
 - 2025년 실태조사에 참여한 연구기관 34개 중 10개 기관(29.4%)이 대전에 위치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연구기관 집적도 보유
 - 특히 대전 소재 연구기관 10개 중 9개 기관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하여 국내 유일의 우주항공 연구기관 클러스터 형성
 - 수도권은 성남·수원·고양·안양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반면, 대전은 연구기관이 단일 권역에 집중되어 연구개발 협력과 기술 융합에 유리한 구조 보유

[표 3-1] 지역별 우주항공 연구기관 집적 현황(상위 3개 지역, 본원 기준)

순번	지역	기관수	비중(%)	기관명	주요 특징
1	대전	10	29.4	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덕특구 중심 집적, 위성·과학연구 거점
2	경기	6	17.6	국토지리정보원(수원), 쓰리디프린팅연구조합(안양),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고양), 한국나노기술원(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성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성남·수원·고양 등 분산 입지
3	경남	4	11.8	경남테크노파크(창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진주), 한국세라믹기술원(진주), 한국재료연구원(창원)	소재·부품·시험인증 중심
4	기타	14	41.2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진천), 국토연구원(세종) 등 충북, 경북, 전북, 울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소재 기관	지역별 산재

자료 : 우주항공청 「2025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연구진 재정리)

■ 위성 및 우주 과학연구 역량이 집중된 국가 연구개발 허브

- 대전 소재 연구기관은 위성체 제작, 위성탑재체, 우주관측, 우주탐사,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전반에 참여하며 국내 우주 연구개발의 핵심 거점 역할 수행
- 특히 위성체 제작 분야 참여 연구기관이 7개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위성 개발 연구기반 보유
- 원자력, 에너지, 통신, 지질자원 등 다양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우주산업 분야로 연구영역을 확대하며 우주기술 융합연구 활성화

[표 3-2] 대전 소재 연구기관별 참여 세부분야 교차표

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KAIST 인공위성센터
우주	위성체 제작	●	●	●	●		●	●			●
	발사체 제작	●									
	지상국 및 시험시설	●			●	●					
	발사대 및 시험시설	●									
	기타 (우주기기제작)	●						●	●		
	원격탐사	●		●		●					
	위성방송통신	●			●						
	위성항법	●	●		●						
	지구과학		●	●		●					
	우주과학	●	●	●						●	
	행성과학		●	●							
	천문학		●				●			●	
항공	무인우주탐사	●	●	●							
	그 외 항공기	●									
	설계	●									
	기타	●							●		

▶ 대전 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 기반 현황

- 지역 내 소수 대학에 우주항공 교육역량이 집중된 전문 인재 양성 거점
 - 2025년 실태조사 참여 기준, 전국 61개 대학 중 우주항공산업과 연계된 대학은 서울이 17개 대학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8개), 경남(5개), 충북·경북(각 4개), 인천·강원·대전·충남 등(각 3개) 순으로 위치
 - 전국 61개 대학 중 대전 소재 대학은 3개교(4.9%)에 불과하나, 유관 학과는 12개 학과(9.1%)로 전국에서 4번째로 다양한 학과 운영
 - KAIST, 충남대, 한밭대 등을 중심으로 위성체 제작, 발사체, 우주활용, 천문학 등 우주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유인우주탐사(전국 대비 50%), 항공부품 소재(40%), 우주기기 제작(33.3%) 등에서 높은 참여 비중 차지

[표 3-3] 대전 소재 대학의 강점 세부분야

세부 분야	유인우주 탐사	소재 (항공부품)	기타 (우주기기제작)	기체 (항공부품)	발사체 제작	천문학	기타 (우주활용)	위성체 제작
전국학과	2개	5개	3개	9개	10개	12개	13개	23개
대전소재 학과	1개	2개	1개	2개	2개	2개	2개	3개
비중	50%	40%	33.3%	22.2%	20%	16.7%	15.4%	13%

- 학과별 참여분야를 분석하면 우주분야에서 참여하지 않는 공백 분야는 4개 분야에 불과한 반면, 반면 항공 분야는 15개 세부분야 중 10개 분야에서 참여학과의 없어 우주 분야에 비해 항공분야의 교육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

[표 3-4] 대전 소재 대학의 우주·항공분야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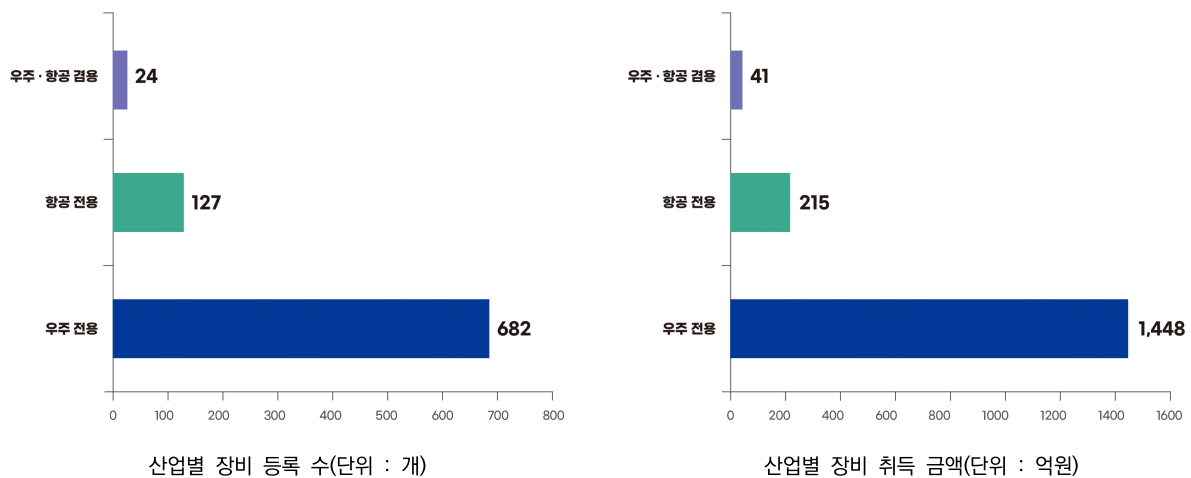
대학	주요학과	우주 참여분야(총14개 분야)	항공 참여분야(총15개 분야)
한국과학기술원 (KAIST)	▶ 학과 수 : 6개 학과 ▶ 학과 명 : 항공우주공학과, 물리학과,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화학과, 신소재공학과	▶ 참여분야 : 총 9개 분야 ▶ 주요분야 :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기타(우주기기제작), 원격탐사, 위성방송통신, 천문학, 유·무인우주탐사, 기타(우주활용)	▶ 참여분야 : 총 4개 분야 ▶ 주요분야 : 민항기제조, 기체, 소재(부품), 기타
충남대학교	▶ 학과 수 : 3개 학과 ▶ 학과 명 : 천문우주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지구환경·우주 융합학과	▶ 참여분야 : 총 4개 분야 ▶ 주요분야 : 발사체 제작, 원격탐사, 우주 및 행성과학, 천문학	▶ 참여분야 : 총 2개 분야 ▶ 주요분야 : 기체, 기타
국립한밭대학교	▶ 학과 수 : 3개 학과 ▶ 학과 명 : 국방우주공학과, 기계공학과, 지능미디어공학과	▶ 참여분야 : 총 3개 분야 ▶ 주요분야 : 위성체 제작(2), 위성방송통신	▶ 참여분야 : 총 1개 분야 ▶ 주요분야 : 전자(부품)

-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포함 시, 우주항공 인재양성 저변은 더욱 확대
 - 대덕대학교, 배재대학교, 한남대학교, UST 등도 드론·우주·국방 분야 과정을 보유
 - 한남대학교는 인공위성시스템 전공, 일반대학원 우주공학과, 국방전략대학원 국방 유·무인 융합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위성활용센터 및 국가MDA연구센터를 통해 연구기반을 확충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과 연계한 전공 과정을 운영하며 국가 연구기관과 연계된 실무형 고급인력 양성을 수행
 - 또한 2025년 대전시 자료 기준, 지역 내 10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관련학과 재학생 수는 총 49,940명으로 우주 및 항공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학과 재학생을 살펴보면 박사 3,863명, 석·박사 통합 20,089명, 석사 5,236명, 학사 37,205명으로 지역 내 고급 연구인력 공급 역량이 높은 수준

▶ 우주항공 연구장비·시설 현황

- 국가 우주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핵심 연구장비 인프라 집적
 - 우주·항공 관련 연구장비 833개, 약 1,703억 원 규모의 연구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장비의 85%가 우주산업 관련 장비로 구성

[그림 3-3] 대전 우주항공산업 연구장비·시설 현황



자료 : ZEUS 등록장비 검색(검색일 : 2026.8.1. / 검색기준 : 2025 실태조사 세분류명 및 지역 대전)

-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연연이 총 738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기업이 총 51개, 대학이 34개, 그 외 기타 10개 순으로 연구장비의 약 88.6%가 출연연에 집중된 연구개발 중심 구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이 전체 장비의 77.7%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우주 연구원의 보유 장비 85%가 우주 전용 장비로 국가 우주연구개발 인프라 집적 확인 가능

[표 3-5] 상위 10개 기관별 장비 보유 수량 현황 (단위 : 개)

순번	보유기관명	우주산업 장비	항공제조 산업 장비	우주·항공 겸용 장비	공동활용	단독활용	합계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13	58	14	176	309	485
2	한국천문연구원	161	0	1	78	84	162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6	0	0	5	21	26
4	한국과학기술원	22	1	0	7	16	23
5	한국기계연구원	6	13	2	15	6	21
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	8	0	4	9	13
7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10	0	0	3	7	10
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9	0	0	3	6	9
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6	0	7	2	9
10	(주)사이언	0	8	0	5	3	8

자료 : ZEUS 등록장비 검색(검색일 : 2026.8.1.)

- 발사체, 추진기관, 위성 중심의 우주 전용 장비 구축
 - 우주분야 장비 취득금액의 약 59%(856억 원)가 발사체와 추진 관련 장비에 투자되었으며, 대부분 누리호 개발과정(2010~20년대)에서의 집중 투자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위성 관련 시설·장비는 탑재체, 위성본체, 지상국, 관제, 수신, 위성활용 등과 관련된 장비를 포함하여 위성의 제작부터 위성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장비 인프라 보유
 - 우주전용 장비의 경우, 정밀과학, 안테나 검출기와 같은 부분에서 국산화율이 낮고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 항공분야 연구장비는 상대적으로 부족, 무인기·UAM·드론 등 국방산업 중심으로 형성
 - 항공산업 관련 장비는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주로 엔진·추진부품, 무인기, UAM·드론 분야에 집중
 - 과제명과 활용목적 분석 결과 국방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 장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용장비 중 국산 장비 비중은 약 50%로 우주 전용 장비 대비 높은 수준
- 집적된 연구장비의 개방·활용성 제고 필요
 - 장비 보유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이나 공동활용 비율은 출연연 40%, 기업 37%, 대학 3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
 - 대덕특구 내 연구장비를 지역 기업, 스타트업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인프라 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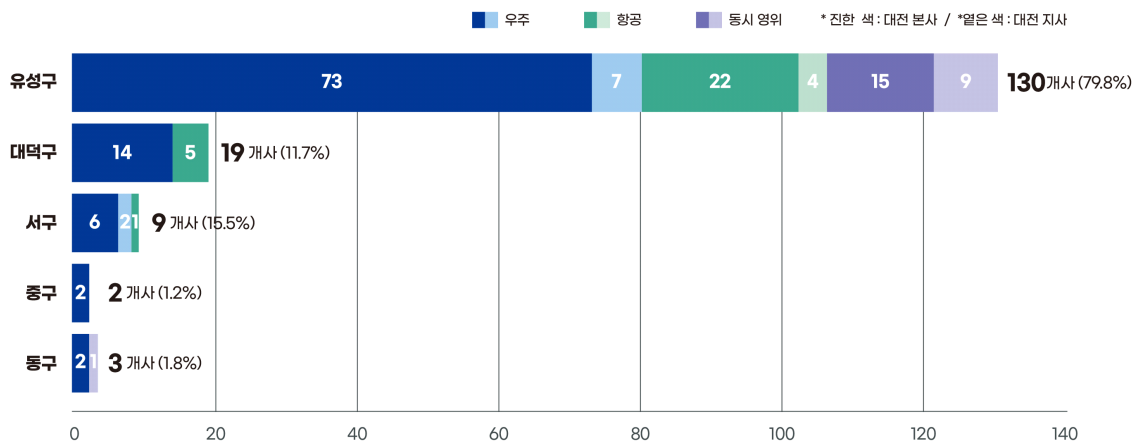
2. 대전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분석

2.1 기업 집적 및 산업구조 경쟁력

▶ 대전 우주항공산업 기업 집적 경쟁력

- 실태조사 외 협회·유관기관 자료 추가 조사를 통해, 대전 소재 우주항공 기업은 총 168개사로 파악
 - 실태조사 미참여 기업, 무인기·드론 기업, 신규 창업기업 등을 포함한 수치(2026.7. 기준)
 -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140개사)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도권 및 충청권 기업의 연구소·지사(28개사) 입지도 활발
 - 특히 대형 완제기·방산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 D&A, 대한항공이 위치하여 대기업의 R&D 및 시험 거점으로 기능
- 우주항공 기업 집적은 유성구를 중심으로 집중
 - 우주보험 분야를 제외한 전체 163개사 중 79.8%가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대덕테크노밸리 인근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집적
 - 우주·항공 융합기업 중 대부분(24개사, 96%)이 유성구에 위치하여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형성
 - 대덕구 19개사는 단일분야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1개 기업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부품·장비 제조기업이 집적하는 구조 형성

[그림 3-4] 대전시 자치구별 우주·항공 참여기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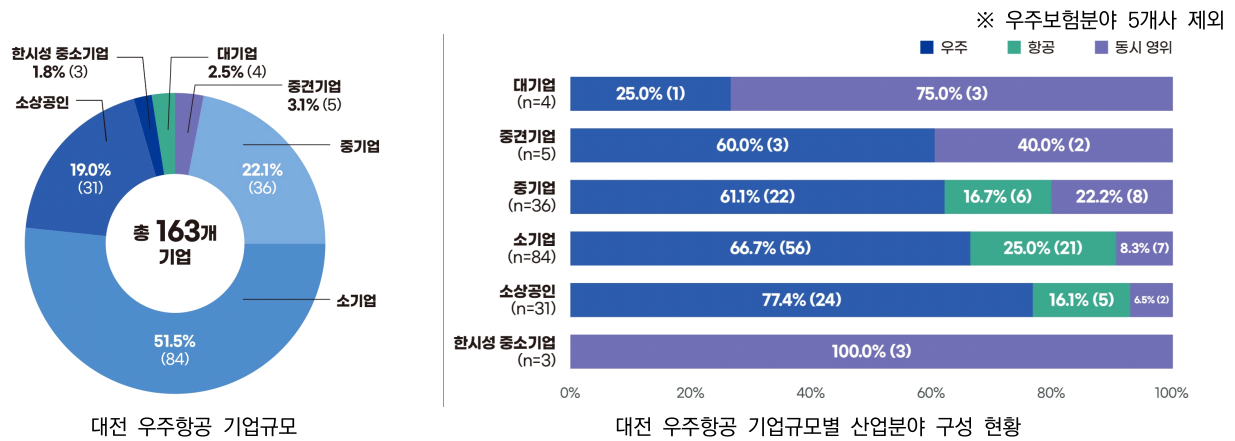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 CRETOP(연구진 재정리)

▶ 대전 우주항공산업 구조 및 성장 특성

- 대전 우주항공산업은 소기업 중심의 연구개발형 산업구조 형성

- 대전의 우주항공 기업은 소기업이 많은 허리없는 피라미드 구조로 절반 이상이 소기업(51.5%)으로 가장 많고, 중기업(22.1%), 소상공인(19%) 순으로 구성
- 소상공인 비중이 19%에 달하는 것은 출연연·대학 기반 기술창업, 연구소기업, 랩스핀오프 기업이 다수 포함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
- 반면 중기업(36개사)에서 중견기업(5개사)으로 성장하는 구간에서 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 부각

[그림 3-5] 대전 우주항공산업 구조 특성



- 기업규모가 클수록, 업력이 증가할수록 우주·항공 융합역량이 뚜렷하게 나타남
- 대기업의 우주·항공 동시 영위 비중은 소상공인 대비 약 11.5배 높게 나타나 기술·자본·인력 축적이 융합사업 확장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
- 대전 항공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종합 또는 완제기 제작 역량을 보유한 앵커기업을 통한 산업 성과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
- 대전 우주항공 기업의 업력을 살펴보면, 우주산업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드론·무인기 분야 창업으로 항공산업의 신생기업 유입이 확대
- 우주·항공 동시 영위 기업의 상당수가 1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축적과 사업 다각화가 융합사업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표 3-6] 대전 항공우주 기업의 업력 분포 현황

설립기간	업력	우주기업		항공기업		동시영위		합계
		본사	지사	본사	지사	본사	지사	
1999년 이전	27년이상	8	3	1	1	3	4	20
2000년~2009년	17~26년	32	4	6	0	7	6	55
2010년~2014년	12~16년	15	0	6	1	3	0	25
2015~2019년	7~11년	22	1	9	1	1	0	34
2020년 이후	6년이하	20	1	6	1	1	0	29
계		97	9	28	4	15	10	163
		106		32		25		

- 대전 우주항공산업은 제조업보다 기술집약형 산업비중이 높으며, 두 산업이 기술기반을 공유
 - 11차 표준산업분류(중분류)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J58), 전자통신장비(C26), 정밀광학 기기(C27), 기계장비(C29) 분야 기업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여 위성, 센서, 광학, AI, 데이터 활용 등 첨단기술 기반 산업이 지역 생태계의 핵심을 구성
 - 주요 업종 구성 비중이 우주산업(58.5%), 항공산업(59.3%), 융합기업(64.0%)에서 유사하게 나타나 기술 기반을 공유하며 적용시장을 달리하는 구조로 분석

▶ 대전 우주항공산업 성장성 및 수익성 분석

- 매출액 기준 산업 규모는 매년 성장 중이나,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
 - 전체 163개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2021년 15조 7,477억원에서 2025년 36조 2,468억원으로 증가하여 약 2.3배 성장
 - 2025년 기준 매출 중위값은 약 30억원 수준으로, 소수 대기업과 다수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이중구조가 뚜렷
 - 특히 우주·항공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군의 매출은 2021년 14조 2,384억원에서 2025년 34조 828억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성장세 견인
 - 이는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 D&A 상위 4개 기업이 전체 매출의 92.1%를 차지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지역 산업의 성장세가 방산·항공우주 대기업의 경영 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
 - 최근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가 매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나, 전사 기준 실적이 반영된 수치인 만큼 지역 내 산업활동 규모와는 구분하여 해석 필요

[표 3-7] 대전 소재 우주항공 기업 매출 추이(2021~2025)

단위: 억원

분야	기업수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지수	매출액	지수	매출액	지수	매출액	지수	매출액	지수
우주산업	106	12,591	100	15,608	124.0	16,365	130.0	18,133	144.0	18,631	148.0
항공산업	32	2,502	100	2,430	97.1	2,659	106.3	2,935	117.3	3,103	124.0
동시영위	25	142,384	100	201,466	141.5	247,636	173.9	306,332	215.1	340,828	239.4
전체	163	157,477	100	219,505	139.4	266,660	169.3	327,401	207.9	362,562	230.2

※ 매출액은 한국평가데이터 CRETOP에서 2026.6월 검색한 값 기준으로 추출
 ※ 지수는 2021년 매출액 대비 당해년도 매출액 비율을 의미

- 대전 우주항공산업의 실질적 성장동력은 지역 우주기업군
 - 대전에 본사를 둔 우주항공기업의 매출은 2025년 1조 2,732억원으로 2021년 대비 약 1.8배 성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
 - 특히 우주산업 분야는 2022년 이후 높은 성장세로 지역 우주항공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이 2023년 이후 성장세가 확대되며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

- 지역 산업의 성장은 씨트렉아이, 아이쓰리시스템, 파이버프로 등 지역 기반 매출 상위 우주기업이 주도하는 형태로, 위성체, 광학센서, 항법장비 등 우주 핵심기술 확대가 주요 성장동력으로 작용
- 2025년 기준 대전 소재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나,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전반의 수익 기반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
- 특히 항공산업은 영업적자 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하는 등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대전 우주항공산업은 우주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와 일부 핵심기업 중심의 수익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

[표 3-8] 본사 기준 대전 소재 우주항공 기업 매출 추이(2021~2025)

단위: 억원

분야	기업수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지수	매출액	지수	매출액	지수	매출액	지수	매출액	지수
우주산업	97	4,304	100	4,382	101.8	6,173	143.4	7,108	165.2	8,260	191.9
항공산업	28	1,171	100	1,359	116.1	1,360	116.1	1,397	119.3	1,517	129.5
동시영위	15	1,672	100	1,640	98.1	1,822	109.0	2,263	135.4	3,049	182.4
전체	140	7,147	100	7,381	103.3	9,356	130.9	10,769	150.7	12,826	1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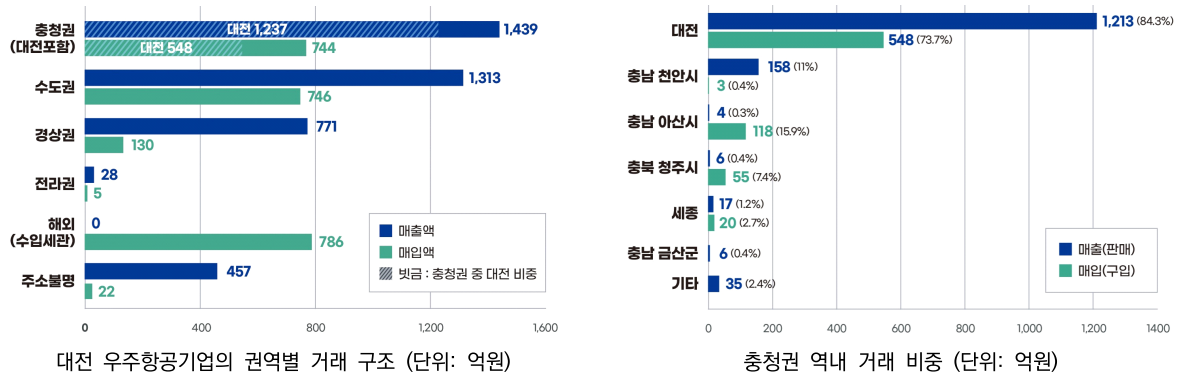
※ 매출액은 한국평가데이터 CRETOP에서 2026.6월 검색한 값 기준으로 추출
 ※ 지수는 2021년 매출액 대비 당해년도 매출액 비율을 의미

▶ 대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연결성

■ 충청권 중심의 거래망 형성, 지역 내 산업 연계 확대 필요

- 본 분석은 2025년 실태조사 참여기업 중 연구진이 2022년 거래정보를 확보한 대전 기업 76개사를 대상으로 거래구조를 분석한 결과로, 지역 산업생태계의 연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 수준에서 해석 필요
- 대전 우주항공기업의 권역별 거래를 살펴보면, 매출은 충청권(35.9%), 수도권(32.8%), 경상권(19.2%) 순, 매입은 해외(32.3%), 수도권(30.6%), 충청권(30.5%) 순으로 나타나 핵심 부품·장비 분야에서 외부 공급망 의존도가 존재
- 충청권 내에서는 대전 내 거래 비중이 매출(84.3%), 매입(73.6%) 가장 높아, 대전이 지역 우주항공산업 거래의 중심 역할 수행
- 한화시스템, LIG D&A, 씨트렉아이, 아이쓰리시스템 등 지역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거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나, 다수의 중소기업은 수도권 및 타 지역 수요처와 연계
- 거래처 유형별로는 관내 거래는 주로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관외 거래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형성되는 특징
-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기업·연구기관·대학이 집적되어 있어 협력 기반은 우수하나, 향후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급망 연계 및 지역 내 민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 필요성 증대

[그림 3-6] 대전 우주항공기업의 권역별 거래 구조 및 비중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 CRETOP (2022 거래 DATA, 연구진 재처리)

2.2 연구개발 경쟁력

▶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역량

■ 국가 우주 R&D 성과를 견인하는 연구개발 허브

- 최근 5년간(2020~2024년) 우주항공 분야 국가 R&D 추이 분석 결과, 대전은 과제 수와 연구비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국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의 핵심 거점 역할 수행
- ST(우주항공) 분야 연구비 구성은 2020년 항공(67.5%), 우주(29.5%)인 항공 분야 중심에서 2024년 항공(38.5%), 우주(49.4%)인 우주분야로 비중 전환이 있었으며, 2022년 이후 뉴스페이스 확산에 따른 국가 우주투자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
- 전국 우주분야 연구비의 80% 이상이 대전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집중된 결과로 판단

[표 3-9] 지역별 ST분야 R&D 과제수 및 연구비 추이('24년 연구비 기준 상위 10개 지역)

(연구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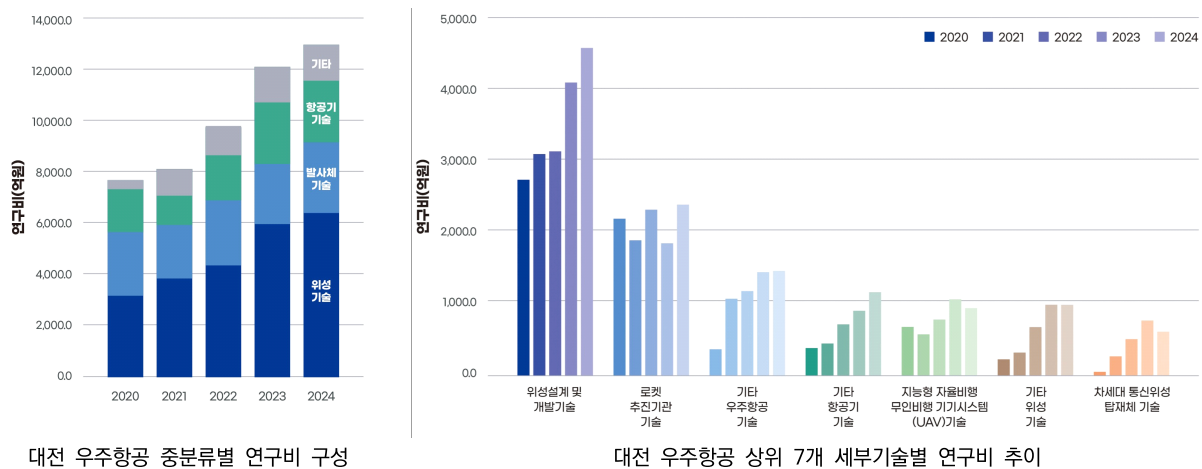
지역	2020		2021		2022		2023		2024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대전	271	7,650.4	308	8,090.4	336	9,765.9	341	12,049.4	343	12,918.0
경남	84	12,044.6	89	9,529.0	95	7,658	134	6,400.3	138	4,582.3
경기	99	543.5	95	620.6	108	755.6	141	13,34.3	150	1,415.2
서울	128	421.2	125	401.9	117	598.6	127	618.1	150	562.5
인천	39	148.2	34	154.8	37	279.9	42	749.7	45	508.1
경북	24	97.2	17	50.3	19	153.3	26	174.3	34	439.6
전남	10	237.9	12	313	11	376.4	10	321.3	11	312.8
부산	35	92.8	32	111.5	38	89.1	43	203.5	44	215.8
충북	17	127.2	17	116.8	17	124.4	23	137.2	28	186.5
충남	12	42.7	14	68.4	20	96.6	15	236	21	169.6
전북	20	44.5	27	75.1	23	65.2	20	82.4	21	73.9
합계	739	21,450.2	770	19,531.8	821	19,963	922	22,306.5	985	21,384.3

자료 : NTIS 과제 검색(6T 중 ST(우주항공 분야))

■ 우주항공 분야 세부기술 중 위성설계·개발 및 로켓 추진기술 분야 특화 역량 보유

- 대전은 위성설계 및 개발 기술, 로켓 추진기관 기술, 기타 우주항공 기술 분야에 연구비 비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 역량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
- 항공분야 연구비 비중도 전국 대비 11.7%에서 28.0% 수준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무인항공기(UAV), 기타 항공기 기술 분야 등 미래 항공기술 중심의 연구 성격 보유
- 제조·생산 기반의 항공산업 보다는 미래 모빌리티 및 국방 연계 기술 중심의 연구 특성 보유

[그림 3-7] 대전 우주항공 세부분야별 연구비 구성 및 연구비 추이



대전 우주항공 중분류별 연구비 구성
자료 : NTIS 과제 검색(6T 중 ST, 지역 대전 한정)

■ 전국 최고 수준의 우주항공 분야 고급 연구인력 활용 역량 보유

- 2024년 기준, 대전 우주항공 분야 국가 R&D 참여 연구인력은 7,330명, 특히 박사급 인력 비중이 45.9%에 달하며 과제당 인원이 21.4명으로 전국 1위 수준
- 이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국가출연연구기관, KAIST 등이 밀집해 있는 결과로 판단되며, 타 지역대비 연구인력의 규모와 전문성 측면의 우위는 대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 가능

■ 지역 내 출연연 중심 연구구조에서 광역 협력형, 민간주도 혁신생태계로의 확장 필요

- 대전에서 수행된 연구비의 91.7%가 출연연 중심으로 집행되었고, 민간투자나 기업 공동연구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형과제·출연연 위주의 연구에서 탈피, 지역 생태계와 융합 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모색 필요
- 2024년 기준 충청권 우주항공 연구비의 96%, 과제 수의 85% 이상이 대전에서 수행되고 있어 충청권 연구개발의 중심축 역할 담당
- 대전 외 지역의 경우 과제수 및 연구비 비중은 낮은 편이나, 대전보다 기업 공동연구 비율이 높고, 한서대 등 항공분야에 특화된 인재 양성, 완제가·헬기·항공기 체계 종합 등 항공 기술 연구에서 대전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2.3 사업화 및 성장 경쟁력

▶ 민간투자 및 사업화 경쟁력

- 우주항공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로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 벤처투자 이력은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한 민간 자본의 평가로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
 - 대전에 기반을 둔 우주항공기업 168개사 중 42개사(25%)가 누적 6,421억원의 벤처투자를 유치했으며, M&A와 IPO 공모를 제외한 순 투자유치액은 4,767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지역기업의 우수한 시장평가 입증
 - 투자유치 경험이 있는 42개사 중 25개사(50%)가 2018년 이후 설립된 기업으로, 우주항공분야 창업 생태계의 활발한 활동 확인
 - 전체 투자유치액의 81%가 우주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항공 제조분야는 드론 및 무인기 중심의 투자가 항공분야 투자 중 50%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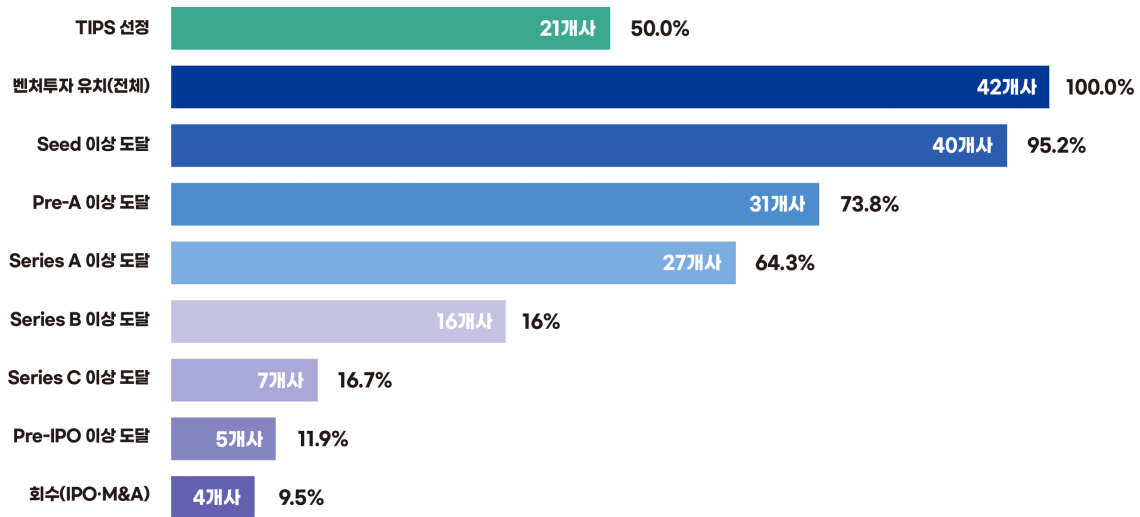
[표 3-10] 산업분류별 벤처투자 유치 현황

산업분류	모집단	투자유치 기업 수	유치율	누적유치액	유치금액 비중	중위값	평균유치액
우주기업	111	28	25.2%	5,199억원	81%	81.5억원	200억원
항공 제조기업	32	12	37.5%	1,016억원	15.8%	80억원	113억원
우주·항공 중복	25	2	8%	205억원	3.2%	102.5억원	102억원
합계	168	42	25.0%	6,421억원	100%	80억원	173억원

자료 : The VC (기준일 : 2026.8.)

- 스케일업 구간의 병목현상과 자금조달의 한계 존재
 - 기업별 투자유치 횟수를 기준으로 집계*할 경우, 총 135개의 투자딜이 이루어졌으며, Seed ~ Series A 단계까지는 비교적 활발한 투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 * (예시) 2013년 8월 1일자로 Series A 단계에서 투자자 2명이 투자한 경우 1건의 딜로 계산
 - 반면 투자단계별 누적 도달 기업 수를 살펴보면 Series A 이상 27개사에서 Series B 이상 16개사, Series C 이상 7개사로 급격히 감소
 - 이는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단계까지는 자금조달이 가능하나, 생산 확대와 시장진출을 위한 대규모 후속투자 확보에는 어려움 존재
 - 특히 우주산업 특성상 사업화 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만큼 지역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연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그림 3-8] 투자 단계별 투자라운드 도달 기업 수



※ 투자유치 42개사 대비 비율 및 투자라운드 기준 누적 도달

- 공공·정책금융과 지역 기술사업화 기반, 지역 내 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성 확인
 - TIPS,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정책성 자금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사업화 지원 성격의 투자가 우세
 - 한국과학기술지주·KAIST청년창업투자지주 등 대덕특구 기반 기술지주 및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출연연·대학의 기술이전이 창업·초기투자로의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투자 건수는 15건 정도로 아직 규모는 작은 편
 - 동시에 씨트렉아이의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Seed 투자(2021년), 컨텍의 레오스페이스 Series A 투자(2026년) 등 지역에서 성장한 선배기업이 후배기업에 재투자하는 사례도 나타나, 지역 내 선배·후배기업 간 자본순환을 통한 산업 생태계 선순환 가능성 확인
- R&D 경쟁력 대비 사업화 성과는 제한적, 초기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
 - 대전은 국가 R&D, 연구인력, 출연연·대학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R&D 역량에 비해 대규모 민간투자자와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사업화 성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수준
 - 특히 투자유치가 초기 단계에 집중되고 스케일업 과정에서 후속투자가 급감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 R&D 성과가 창업·초기투자를 넘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취약
 - 이에 따라 창업 초기 지원을 넘어 스케일업 투자, 글로벌 자본 연계, 공공기술 사업화 확대 등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이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R&D → 창업 → 투자 → 스케일업' 성장 사다리 구축 필요

3. 정책사업 및 산업육성 수요

3.1 우주항공산업 기업 수요조사

▶ 개요

- 조사목적 : 우주항공산업 분야 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요 분석
- 조사대상 : 국내 우주항공산업 전후방 기업 (총 98개 기업 분석)
- 조사기간 : 2025년 11월 ~ 12월
- 주요내용 : 기업 일반현황, 대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인식도, 정책 수요 등
- 조사방식 : 연구진이 설계한 설문지 기반, 조사전문업체를 통한 온라인 설문 시행

▶ 주요결과

- 응답기업 특성
 - 응답기업은 우주·항공 융합기업(52.1%), 우주기업(31.6%), 항공기업(16.3%)으로 구성되어 우주항공산업 전반의 정책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표본 구성
 - 세부사업 분야는 항공기 부품·시스템 제작(42.7%)과 위성체·발사체 제작(34.0%)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전은 전국 위성체 제작 기업의 40.7%(11/27개사)가 소재하는 등 위성체 분야의 집적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 기업 참여 확인
 - 응답기업은 소기업이 59.2%를 차지했으며, 대전 소재 기업의 91.0%가 소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지역 기업구조를 반영하는 표본 구성
- 정책 수요 : R&D 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사업화집적·실질 지원을 요구
 - 기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제품개발 및 R&D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며(54.3%), 국내 신규 수요처 발굴과 해외 진출도 주요 전략으로 나타나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를 병행하는 정책 기반 마련 필요
 - 참여기업의 과반이 향후 5년 내 시설 이전 또는 확장 계획을 보유하고 있고, 이전·확장 대상은 공장 비중 응답이 높아, 향후 제조·양산 기능 확대 수요 확인

[표 3-11] 향후 5년 내 시설 이전 또는 확장 계획

구분	있음	없음	구분	공장	본사확장	본사이전	연구소	지사설립
응답수(개)	55	38	응답수(개)	23	18	16	15	5
비중(%)	59.1	40.9	비중(%)	29.9	23.4	20.8	19.5	6.5
시설 이전 또는 확장 계획 보유 여부			5년 이내 이전/확장하고자 하는 시설(중복응답)					

- 이전 후보지는 대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시된 클러스터 중 대덕특구와 안산첨단국방산단에 수요가 집중되어 연구기관과의 접근성, 기술협력 여건이 입지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표 3-12] 이전 또는 확장 계획 후보지

후보지	대전시	세종시	수도권	충청권	경남	전남	기타	기업 소재지	대전	타지역
1순위 집중	25 (45.5%)	-	18 (32.7%)	3 (5.5%)	7 (12.7%)	-	2 (3.6%)	1순위 선호 지역	대전	수도권
3순위 포함	44 (28.9%)	20 (13.2%)	34 (22.4%)	18 (11.8%)	21 (13.8%)	4 (2.6%)	11 (7.2%)	응답수 (비중)	17 (94.4%)	18 (48.6%)

이전 또는 확장 계획 보유 기업의 후보지(선호지역)

응답기업 소재지별 후보지(선호지역)

[표 3-13] 지역 내 클러스터 중 이전 또는 확장 후보지

후보지	안산산단	탑립·전민	대덕특구	나노반도체 산단	기타	기업 소재지	대전	타지역
1순위 집중	16 (36.4%)	8 (18.2%)	14 (31.8%)	2 (4.5%)	4 (9.1%)	1순위 선호 지역	안산산단	대덕특구
3순위 포함	36 (28.3%)	36 (28.3%)	34 (26.8%)	13 (10.2%)	8 (6.3%)	응답수 (비중)	6 (33.3%)	10 (38.5%)

이전 또는 확장 계획 보유 기업의 후보지(선호지역)

응답기업 소재지별 후보지(선호지역)

※ 우주항공 클러스터 후보지역을 예시로 제시하여 조사한 결과로, 보기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과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 입주 결정 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연관 업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기술 연계 가능성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확장에 적합한 입지, 시장 및 전문인력 접근성, 지원정책, 직원 통근 편의 등이 주요 고려요인으로 조사되어 기업 입지 수요의 핵심 요인 확인

[표 3-14] 입주·투자 의향 후보지 선택이유

순위	고려사항	응답수	비중(%)
1	(협력) 연관 업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기술 연계 가능성	32	18.9%
2	(입지) 사업의 신규 투자 및 확장에 적합한 위치	24	14.2%
3	(접근성) 원료·부품 등 주요 고객업체 및 시장과의 접근성	22	13.0%
3	(인력) 전문인력 확보 및 연구기관·대학 등과의 접근성	22	13.0%
4	(지원정책) 지자체 및 우주항공산업 집적단지 관련 각종 지원정책	20	11.8%
5	(교통편의) 직원들의 복리증진 및 통근 편의	19	11.2%
기타	분양가, 운영비, 제도환경, 지역연고	30	17.8%

※ 중복선택

- 대전 지역의 우주산업 생태계 인프라 수준에 대한 기업 인식은 평균 3.5점(49.5%)로 나타나, 지역 우주산업 기반 시설 및 지원체계에 대한 체감 수준이 보통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은 평균 4.2점(78.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전 소재 기업은 4.4점(87.9%)으로 응답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높은 수요 확인

[표 3-15]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인프라 수준 인식도 및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

구분	전체 응답기업		대전소재 기업	
	점수	긍정응답률	점수	긍정응답률
우주산업 생태계 인프라 수준 인식도	3.5	49.5%	3.5	45.5%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	4.2	78.3%	4.4	87.9%

- 대전 우주항공산업 집적단지 내 기업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총 60개사, 69%), 지원시설 중 시험·검증시설(4.2점)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기업입주시설(4.0점)에 대한 수요도 높아, 기업 성장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실증·연구개발 중심의 지원 인프라 우선 구축 필요

[표 3-16] 향후 5년 내 시설 이전 또는 확장 계획

구분	참여/검토 의향있음	잘모름 의향없음	구분	시험검증 시설	기업입주 시설	기업지원 시설	공동연구 공간	공동사무 공간
응답수(개)	60	27	필요성(점)	4.2	4.0	3.9	3.9	3.5
비중(%)	68.9	31.1	비중(%)	82.3	74.7	72.2	69.6	50.6
시설 이전 또는 확장 계획 보유 여부			5년 이내 이전/확장하고자 하는 시설(중복응답)					

- 응답기업의 63.2%가 향후 산학연 협력에 관심을 보였으며, 협력 파트너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국방과학연구소 등 대전 지역 핵심 연구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 지역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공동연구, 기술사업화를 강화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시사점

■ R&D와 사업화를 연계하는 우주항공산업 성장지원체계 구축

- 기업의 핵심 수요가 제품개발과 R&D에 집중된 만큼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시험·검증, 실증, 인증, 기술사업화까지 연계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우주항공 클러스터 중심의 집적화 전략 강화

- 응답기업의 59.1%가 향후 5년 내 이전·확장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필요성에 대한 높은 수요도 확인되어 지정 당위성 확보
- 우주항공 클러스터 내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시험·검증시설’이 1순위로 꼽혀 민간기업이 자체 구축하기 어려운 우주항공 전용 테스트베드를 정책과제로 도출, 인프라 경쟁력 확보 필요
- 기존 연구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생산·양산 시설 및 기업 입주 공간을 결합한 종합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기관, 앵커기업, 지원시설이 밀집된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우량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와 지역 정착 유도 필요

■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기반의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

- 연구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이 입지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는 동시에 응답 기업의 63.2%가 향후 산학연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여, 대전 지역 핵심 연구기관과의 연계 수요 확인
-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국방과학연구소 등 대전 지역 핵심 연구기관을 협력 파트너로 희망하는 수요가 높아 산학연 협력 기반 강화 필요
- 지역 혁신기관을 구심점으로 삼아 기업 간 공동연구,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활성화와 공동연구, 기술이전, 실증사업 확대 필요

4. 대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종합 진단

- 대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자산을 보유했으나, 사업화·산업화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연구개발 중심형 생태계

[표 3-17] 대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종합 진단

구분	강점	약점	주요 시사점
산업기반	- 전국 3위 규모의 우주항공 기업 집적 기반 보유 - 대기업 R&D 거점 - 우주기업 중심 산업구조	- 제조·양산 기반 부족 - 항공 제조기업 집적도 낮음	- 연구개발 중심 우주항공 산업 기능 특화 필요 - 방산기업 집적, 우주·항공 국방 융합산업 최적지
연구기반	- 전국 연구기관의 약 30% 집적 - 대덕특구 중심 위성 및 우주과학 역량 집중 - 대량의 연구장비 보유	- 출연연 중심 산업구조 - 우주대비 항공 분야 연구기반 낮음 - 장비의 낮은 공동활용률, 기업접근성 제약	- 우주항공 분야 동시 적용 가능한 융합연구 활성화 - 출연연-기업 공동연구, 사업화 플랫폼 구축
인재	KAIST, 충남대, UST 등 우주항공 분야 고급 인력 공급 역량 보유	- 우주 중심 인재 정책, 교육구조 - 현장형 인력 부족	우주, 항공, 국방 융합형 인재양성 확대
산업구조	- 위성·센서·광학·AI 기반 기술집약 산업 특화 - 우주산업 중심 고성장 지속	- 소기업 중심 연구개발형 산업구조, 중견기업 성장구간 취약 - 수익성 및 매출 상위 기업 편중	- 우주항공 초기 스타트업 발굴 및 스케일업 지원 - 앵커기업 중심 공급망 확대, 오픈이노베이션 체계 구축 지원
R&D	국가 우주 항공 R&D 연구비·과제수 전국 1위	연구비 91.7% 출연연 집중	지역, 민간주도 R&D 확대 필요
사업화	- 벤처투자 유치 활발 - 창업생태계 활성화	대형 투자라운드 실적 다소 낮은 편	스케일업 펀드 및 글로벌 투자 연계 필요
정책수요	- 우주항공 클러스터 중심의 집적화 전략 필요 - 민간기업의 높은 산학연 협력 수요	-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생산, 양산시설 수요 존재 - 클러스터 내 체감 가능한 정책 지원 요구	우주항공 특화 클러스터 조성 추진 필요성 확인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대전 우주항공산업 전략 분석
2. 대전 우주항공산업 육성방향
3. 정책제언

V

결론

1. 대전 우주항공산업 전략 분석

▶ 대전 우주항공산업 대내외 환경분석 및 전략 도출

- 외부환경 분석 (PEST)

정치적 요인 (P)	경제적 요인 (E)
▶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산업 육성체계 강화 ▶ 우주·AI 기반 미래 방위체계 구축 수요 증가 ▶ 지역 거점 중심의 우주항공 클러스터 정책 본격화 ▶ 방산·우주분야 정부 R&D 투자 확대	▶ 글로벌 우주항공 경제 지속 성장 ▶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장 확대 ▶ 미래항공모빌리티 및 차세대 항공 시장 성장 ▶ 우주·방산 분야 벤처투자, 민간기업 참여 확대
사회적 요인 (S)	기술적 요인 (T)
▶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반의 산·학·연 협력 문화와 기술사업화 생태계 형성 ▶ KAIST·충남대·UST 등 연구인재 집적 ▶ 우주산업 클러스터로서 대전 인식도 증대	▶ 저궤도위성·재사용발사체 등 우주기술 혁신 가속 ▶ AI 기반 우주항공 시스템 고도화 ▶ 우주항공·국방 분야 민군겸용 기술 중요성 확대 ▶ AAM 및 차세대 항공기술 상용화 진전

- 내외부 역량 분석 (SWOT)

강점 (S)	약점 (S)
▶ 항우연, 천문연, ADD 등 핵심 연구기관 집적 ▶ 국가 핵심 연구장비·시설 보유 ▶ 우주항공분야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 기술창업 및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확보	▶ 우주항공청과의 거리 및 정책연계 한계 ▶ 항공산업 기반 기업 및 인프라 부족 ▶ 국가 연구자산의 기업활용·사업화 연계 한계 ▶ 수도권, 경상권의 우주항공기업 집적 ▶ 앵커기업 부재 및 생산거점, 가용부지 부족
기회 (O)	위협 (T)
▶ 뉴스페이스 도래에 따른 우주투자 확대 ▶ 정부 주도 위성정보활용플랫폼 SPC 설립 ▶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중부권 성장엔진 산업으로 미래방산·수송시스템 선정 ▶ 우주항공, 방산분야 기술자립 필요성 증대	▶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동남권·제주 중심의 우주항공 정책 지원패키지 ▶ 고기술, 장기개발 산업 특성으로 인한 시 예산 지속성, 민간투자 유치 한계 ▶ 대기업 중심 국가R&D구조 및 중소기업 참여 제한

- 대전 우주항공산업 육성방향 도출

〈 국가 연구자산 기반 우주항공 기술혁신 및 사업화 허브 조성 〉

- | | |
|-------------------|---------------------|
| ① AI 융합 우주항공 혁신허브 | ② 국방우주 특화 클러스터 |
| ③ 우주항공 스타트업 성장거점 | ④ 충청권 연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

2. 대전 우주항공산업 육성방향

2.1 국가 연구자산 기반 AI 융합 우주항공 혁신허브 조성

▶ 대전은 제조·양산 중심의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와 경쟁하기보다는 국가 연구자산과 AI 역량을 활용한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중심의 혁신허브로 차별화 필요

- 기술적 연계성이 높은 우주, 항공산업에 대한 통합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되, 우주분야는 위성·데이터·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항공분야는 무인기·항공전자·SW 중심으로 특화하여 대전형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

▶ 주요 추진과제

① 국가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및 AI 융합 혁신플랫폼 구축

-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데이터를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플랫폼 구축·지원
- AI,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기술을 우주항공 분야에 접목하여 연구개발부터 설계, 검증, 운영까지 전주기 혁신 지원

② 첨단 항공기술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

- 제조 중심 항공산업과 차별화하여 무인기, 항공전자, 항공 SW 분야 집중 육성
- 우주클러스터의 연구·인재개발 기능을 항공 분야까지 확장하여 미래항공 핵심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거점으로 육성

③ AI 기반 우주데이터 활용산업 육성

- 우주항공청 위성정보활용플랫폼 SPC 추진과 연계한 위성데이터 기반 신산업 창출
- AI 기반 위성영상 분석, 관측, 공간정보 서비스 기업 집중 육성
- 지자체 행정수요와 연계한 AI·위성정보 융합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 공공수요 기반 위성정보 서비스 도입 및 테스트베드 구축

[대표사업] AI·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실증사업

■ 사업개요

- ▶ 대전시와 시 위성활용 기업이 공동참여하는 공공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 ▶ 공공분야 행정수요를 기반으로 지역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현장에 적용·검증하고 사업화 성과 창출 지원

■ 사업내용

- ▶ AI 기반 위성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공공문제 해결 서비스 발굴, 기업-지자체 공동 실증 지원
- ▶ 적용분야 예시 : 도시관리, 재난관리, 환경관리, 교통 등

2.2 국방-우주항공 특화산업 육성

▶ 최근 우주기술은 국방·안보와 직결되는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주감시(SDA), 우주상황인식(SSA), 위성통신, 정찰·감시체계 등 국방우주 분야의 중요성 확대

- 대전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내 최대 국방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등 국방산업과 국방인재 양성 기능을 포괄하는 국방혁신 거점으로서의 도약 계기 마련
- 우주항공·방산·AI를 연계한 국방우주 특화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필요

▶ 주요 추진과제

① 국방우주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 ADD, 항우연, 천문연 등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국방우주 분야 기술발굴·실증·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우주감시(SDA), 우주상황인식(SSA), 위성정보 분석 분야 전문기업 육성

② 방산혁신클러스터 연계 국방우주 산업생태계 조성

- 기존 방산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과 우주항공기업 간 기술교류회 등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내 국방우주 기업 집적 및 실증거점 마련
- 방산AX클러스터, 국방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한 국방우주 공급망 구축

③ 국방우주 인재양성 및 교육혁신 거점 구축

- KAIST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한밭대 우주국방첨단융합학과 등과 연계한 국방우주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 등 AI 기반 전 영역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및 국방우주 분야 실무형 고급인력 양성 지원

④ 국방우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대기업 중심 국방사업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지원
- 소규모 실증사업 및 시범구매 프로그램 운영

대전시 방산·우주항공기업 인터뷰(2026.7.2.)

- ▶ 현재 국방사업은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높은 보안요건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참여에 한계 존재
- ▶ 초기 단계에서는 요구성능을 일부 완화하고 군이 시범 활용 후 구매를 결정하는 단계적 획득체계 도입, 소규모 실증사업 및 시범사업 확대 필요

2.3 우주항공 창업·성장기업 집중 육성

▶ 대전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우주항공분야 기술창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높은 소기업·벤처기업 비중 대비 제조·양산 역량을 갖춘 앵커기업 부족으로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및 시장진출 단계에서 정체구간 발생

- 장기간 투자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우주항공산업 특성을 고려,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 투자, 실증·시험인증, 글로벌 진출을 연계한 성장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주요 추진과제

① 우주항공 기술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체계 구축

- 연구기관 보유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연구실 창업 활성화 지원
- 공공기술 기반 우주항공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② 우주항공 전문 투자생태계 조성

- 대전투자금융(주) 등과 연계하여 우주항공 전문펀드 조성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
- 민간 VC와 연계한 투자설명회, 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 초기기업부터 성장기업까지 단계별 투자 연계체계 구축

③ 실증·시험인증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우주항공 분야 시험·평가·인증 지원체계 구축
- 공공수요 연계 실증사업 및 테스트베드 확대

대전시 우주항공 분야 학계 전문가 인터뷰(2026.6.22.)

- ▶ 지역 연구·산업 인프라와 공공수요를 연계한 선도적 R&D·실증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서비스 실증까지 지원하여 지역 내 혁신서비스 확산 및 신규시장 창출 필요
- ▶ 지역 내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실증·시험 자원으로 개방하여 기업 참여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실증을 통한 기술 상용화 및 전국 단위 사업화 연계 강화 필요

④ 글로벌 진출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우주대회(IAC), ISS 국제우주컨퍼런스, InLEX KOREA 등 국내외 우주항공·방산 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협력 확대
- 우주항공·국방 분야 해외 기관, 기업, 클러스터와의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지원
- 국제 전시회, 해외 바이어 상담회 등 글로벌 시장 진출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인증, 현지화 컨설팅, 수출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강화
- 대전을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항공 국제 네트워크 거점으로 육성

2.4 충청권 광역 협력체계 구축

- ▶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제조·생산거점으로 육성되는 상황에서, 대전은 실증부지·양산 기반의 한계가 있어,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전주기 생태계 구축에 제약 존재
 - 대전의 우주항공·국방 연구개발 역량과 세종·충남·충북의 제조·실증 기반을 연계할 경우, 연구개발부터 실증 및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구축 가능
 -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에 중부권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우수한 첨단산업 여건과 방산·모빌리티 R&D 역량에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는 계획을 포함
 - 미래 방산·수송시스템은 미래차, 무인모빌리티, 미래항공교통(AAM), 첨단무기체계 등 핵심 소재·부품·SW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될 예정으로, 충청권 내 기능분담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성장전략과 연계한 초광역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

▶ 주요 추진과제

- ① 중부권 미래 방산·수송시스템 연계 공동 육성전략 수립
 - 국가전략과 연계한 충청권 우주항공산업 공동 육성계획 수립
 - 대전은 우주항공·국방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세종·충남·충북은 시제품 제작·실내 실험·필드 테스트 등 실증·제조 기능 중심으로 역할 분담
 - 무인기, 미래항공교통(AAM), 첨단무기체계, SW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공동 프로젝트 발굴 (예: 우주항공청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프로젝트 공동참여 등)
- ② 충청권 공동 우주항공 테스트베드 구축
 - 충청권 내 실증시설 및 유휴공간 공동 활용, 대전은 출연연·대기업 기술연구소를 활용한 연구개발·기술검증 지원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 무인기·드론·위성·항공전자 등 분야별 공동 실증환경 및 테스트베드 조성
- ③ 충청권 우주항공 인재양성 및 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공동 교육과정 및 산학연 프로젝트 운영
 - 지역별 대학·연구기관의 전문분야를 활용한 우주항공 융합인재 공동 양성

대전시 우주항공 분야 학계 전문가(2026.6.22.), 기업(2026.7.9.) 인터뷰

- ▶ 대전의 연구개발·인재양성 역량과 충남·충북 등의 제조·실증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별 기능을 분담하는 충청권 광역 협력체계 구축 필요. 권역 단위 공동 R&D 및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광역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함
- ▶ 대전은 실증부지가 부족함.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지역 간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공동활용 필요

3. 정책제언

▶ 대전 우주항공산업 발전전략

- 대전은 제조·양산 중심의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와 차별화하여, 국가 연구자산과 AI 역량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기술사업화·창업 중심의 혁신허브로 육성 필요
- 이를 위한 4대 육성방향을 아래와 같이 도출
 - ① (국가 연구자산 기반 AI 융합 우주항공 혁신허브 조성) 출연연 연구인프라 개방·활용, AI·디지털트윈 기반 전주기 혁신 지원, 위성데이터 활용산업 육성
 - ② (국방·우주항공 특화산업 육성) ADD·방사청 등 국방R&D 인프라를 활용한 국방 우주 기술사업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연계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 ③ (우주항공 창업·성장기업 집중 육성) 딥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전문 투자생태계 조성, 실증·인증 지원, 글로벌 진출 네트워크 구축
 - ④ (충청권 광역 협력체계 구축) 대전(R&D·인재양성)과 세종·충남·충북(제조·실증)의 기능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초광역 산업생태계 구축
- 우주항공산업 육성전략은 개별 과제가 아닌 R&D 역량 강화(①, ②) → 창업·사업화(③) → 실증·확장(④)로 이어지는 하나의 생태계 축으로 상호 연계 필요

▶ 대전형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 **(정책 통합)** 현재 우주·항공(드론)·방산 분야가 개별 부서·사업 단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국가 우주항공정책과 연계하여 우주·항공과 국방·AI를 아우르는 대전시 통합 육성전략 및 중점 육성분야 발굴 필요
- **(거버넌스 구축)** 출연연·대학·기업·국방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전시 주관의 '대전 우주항공산업 육성 협의체(가칭)' 구성 및 운영 필요
- **(재정·제도 기반)** 우주항공 전문펀드 조성, 실증·인증 지원체계, 국방우주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전담조직·예산 확보 등 실행기반 마련 필요
- **(광역 연계 필요)** 대전의 공간적 한계 해소를 위해 충청권 우주항공산업 협의체를 확대 구성하여 기업·연구기관·지자체 간 정보·인프라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메가프로젝트(중부권 첨단전략산업 허브)와 연계한 초광역 협력체계로 확장 필요
- **(기대효과)** 대전시 정책과 산학연관군 거버넌스, 충청권 광역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대전이 국가 우주항공 혁신생태계의 R&D·인재양성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충청권 전체의 광역 경쟁력 확산으로 확산 기대

참고문헌

보고서·간행물

- AIRBUS(2026), Airbus Global Market Forecast 2026-2045
- ASD(2025), Destination 2050 – A route to net zero European aviation
- BOEING(2025), Commercial Market Outlook 2025-2044
- ESA(2025), ESA Strategy 2040
- KIEP(2025), 중국 15차 5개년 계획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MarketsandMarkets(2026), Urban Air Mobility Market Size, Share, and Trends
- METI(2026), 「空の移動革命に向けたロードマップ」を改訂しました
- PwC(2025) 「Future of Industrials Survey」
- PwC(2025), 2026년 항공우주·방위산업 리더들이 주목해야 할 10대 성장 전략
- World Economic Forum·McKinsey&Company(2024), Space: The \$1.8 Trillion Opportunity for Global Economic Growth
- 관계부처 합동(2026),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6), 2026년 NATO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 대전광역시(2025), AIRBUS ITC 대전 설립제안서
- 우주항공청(2025), 2025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우주항공청(2025),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
- 우주항공청(2025), 대한민국 항공혁신 추진전략
- 우주항공청(2025),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 우주항공청(2026), 2026년도 항공산업발전 시행계획

보도자료

- 경인일보(2026.6.14.) - 수도권 첫 방산혁신클러스터 인천에... '안티드론' 거점 키운다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홈페이지-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 글로벌이코노믹(2026.7.14.) - 中, "저고도 경제" 하반기 '올인'...드론·UAM 표준 선점 나선다
- 매일경제(2025.5.5.) - 잘나가는 K방산 '빅4' 수주잔액 100조 눈앞
- 연합뉴스(2025.5.3.) - 트럼프 정부, NASA 예산 24% 삭감 추진...화성 유인탐사는 증액
- 연합인포맥스(2026.8.11.) - [K-방산 현주소①] 31%나 성장했지만 세계시장 비중 2%
- 이코노미코리아(2025.11.12.) - 미국 추격하는 '中 우주굴기', 대규모 국책 투자로 자체 산업 생태계 구축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2026.6.12.) - "수도권 최초" 거점...인천, 'K-방산' 항공·우주, 옛 지시분야 490억 규모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최종확정
- 인천투데이(2025.5.5.) - [기획] 인천 항공MRO '부품·인력·R&D' 3박자 선순환 육성

웹사이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 한국 스타트업 투자 데이터 베이스 더브이씨(The VC), thevc.kr
-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정보서비스 크레탑, www.cretop.co.kr
- (사)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www.korea-uvs.org
-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www.zeus.go.kr

저자

정 주 연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전략기획부 선임연구원

강 찬 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전략기획부 연구원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진단과 육성방향

발 행 처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발 행 일 2026. 9. 1.

DiSTEP 대전과학산업진흥원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for Enterprise & People

343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캠퍼스혁신파크 A동 5층
Tel. 042-865-0590 Fax. 042-861-4309

※ 주의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전제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및 출판권을 침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이슈페이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